

영화의 시대

사회, 미학, 권력의 파노라마

영화를 통해 사회를 읽다!

세계 영화사, 사회사, 문화사의 변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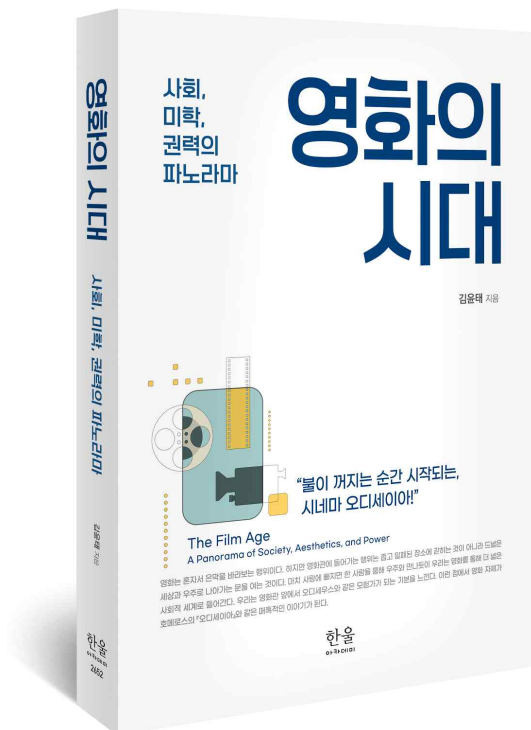
한 번에 꿰뚫는 새로운 시선

이 책의 저자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사회정책을 연구해 온 사회학자이다. 그런 그가 영화를 단순한 오락이나 미학적 대상이 아닌, 사회를 읽는 문화적 텍스트로 바라보는 인문교양서를 집필했다.

쇼베의 동굴 벽화에서 감지되는 ‘움직이는 이미지’에 대한 인류의 갈망은 수십 세기를 지나 1895년 영화의 탄생으로 결실을 맺었다. 영화는 가상현실이긴 하지만 현실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사람들은 영화를 통해 웃고 놀라고 한숨짓고 눈물을 흘리며, 때론 즐거움과 위안을 얻기도 한다. 저자는 이를 두고 “신에게서 인간이 잃어버린 신성을 발견하려 하듯이, 영화에서 잃어버린 인간성을 찾으려는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영화가 정치, 권력, 자본, 기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데 주목하면서 영화를 단순한 예술 작품으로 보기보다 사회적 실천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130년 ‘영화의 시대’를 통사적 서술과 주제별 서술을 오가며 입체적으로 기술한다. 러시아 혁명과 소비에트 영화, 나치 독일과 선전영화, 프랑스의 누벨바그와 1968년 학생운동, 할리우드와 미국 사회의 변화 등, 영화와 사회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단순한 영화 소개서에서 느낄 수 없는 깊이 있는 통찰을 선사한다.

저자는 시대가 달라도 사회적 맥락 속에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고전영화의 가치를 특히 강조하면서, 세계 영화사, 사회사, 문화사의 흐름을 파노라마처럼 풀어낸다.



한울아카데미

김윤태 지음

2026년 7월 30일 발행

신국판(153×224) | 양장 | 304쪽 | 값 33,000원

대중문화, 사회학

ISBN 978-89-460-7652-5 03680

한울엠플러스(주) 펴냄



편집 최진희(031-955-0624, jinhui@hanulbooks.co.kr)

10881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153 한울시소빌딩 3층

031-955-0655(대표전화) | 031-955-0656(팩스)

www.hanulmplus.kr | blog.naver.com/hanulnew

쇼베의 동굴 벽화, 플라톤의 ‘동굴의 그림자’, 고대 중국과 아랍에서 유행한 그림자극, 르네상스 시대에 등장한 옵스큐라와 환등기의 발명을 거쳐 1895년 뤼미에르 형제에 의해 탄생한 영화는 130여 년의 시간을 지나 오늘날 ‘제7의 예술’로 자리 잡았다. 1인 미디어, CCTV, 블랙박스, 증강현실 등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일상은 영화적 풍경으로 변했으며, 오늘날 사회는 ‘시네마 사회’라고 불릴 만큼 영화가 삶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나 오슨 웰스의 <시민 케인>과 같은 고전뿐 아니라 이창동의 <버닝>이나 황동혁의 <오징어 게임>처럼 사회학적 해석이 요구되는 영화에 주목한다.

저자는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차원(자연과 공간), 실존적 차원(인물의 성격과 심리), 표현적 차원(미학적 스타일), 사회적 차원(구조적 관계), 이데올로기적 차원(가치와 문화)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영화 속에 담긴 사회적·이데올로기 차원은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학적 지식과 관점이 필요하다”(29쪽)는 점을 책 전반에 걸쳐 강조한다.

불이 꺼지는 순간 시작되는 시네마 오디세이아!

1장에서는 영화가 단순한 창작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권력, 자본, 기술, 관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산물이자 ‘사회를 이해하는 창’임을 보여준다.

2장에서는 기술과 자본이 인류 문명의 오랜 시각문화 전통과 결합해 영화가 탄생하는 순간을 살펴보고, 프랑스·영국·독일에서 형성된 영화 산업이 나치 독일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할리우드로 중심축을 옮겨 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3장에서는 미국 영화산업이 뉴욕을 떠나 캘리포니아 할리우드에 정착하게 된 배경과 할리우드가 국제적인 영화 중심지로 성장하는 과정, 할리우드 영화가 태평양을 건너 중국·일본·조선 등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를 중심으로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 시대의 명암을 조명하고, 서부극이 전성기를 이끈 할리우드의 황금기를 들여다본다.

5장에서는 러시아 혁명 이후 소비에트 영화가 몽타주 기법 등으로 영화사에서 혁신을 이끌었지만,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이데올로기의 통제 속에서 점차 창조성을 잃어가는 과정을 좇는다.

6장에서는 영화가 권력의 가장 강력한 선전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나치 독일의 전체주의 영화를 사례로 보여준다.

7장에서는 20세기 중반 자본 논리가 영화계를 지배하면서 섹스·폭력·전쟁 등을 다룬 장르 영화와 블록버스터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프랑스·이탈리아·독일의 예술영화가 미국의 감독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기 시작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8장에서는 프랑스의 누벨바그가 작가주의를 통해 영화를 감독 중심의 예술로 탈바꿈시키는 과정을 따라간다.

9장에서는 루이스 부뉴엘과 페데리코 펠리니의 작품을 중심으로 초현실주의가 기존의 영화 문법을 혁신해 새로운 영화 미학을 확립해 가는 과정을 다룬다.

10장에서는 1960~1970년대 베트남 전쟁과 학생운동, 히피 문화 등 급진적 반문화가 할리우드에 유입되어 주류 문화로 흡수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11장에서는 영화가 사회의 불평등과 권력, 부패를 비판하는 예술임을 <서울의 봄>, <인사이드 잡>, <국가 부도의 날>, <나, 다니엘 블레이크>, <기생충>, <버닝>, <노매드 랜드>,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보여준다.

12장에서는 사회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문화적 매체인 영화의 미래를 전망한다.

기술이 진보하면 영화는 사라질까?

코로나19 이후 OTT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영화관의 위기가 계속 보도되었다. 최근 전해진 대형 영화관의 파산 소식은 영화관의 존립은 물론이고 영화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과연 영화는 살아남을 것인가?’

이에 대해 저자는 기꺼이 ‘예’라고 답한다. 영화는 텔레비전의 등장, 반독점 판결, 베트남전과 반문화의 확산으로 위기에 내몰리면서도 다시 곳곳이 살아남았다.

저자는 디지털 플랫폼과 숏폼 콘텐츠의 시대인 지금도 영화의 문법과 미학은 여전히 현대 문화의 중심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감정과 기억, 상상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예술인 영화가 앞으로도 사회를 읽고 시대를 성찰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지은이 소개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런던정경대학교(LSE)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도서관장,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초빙교수,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홍콩중문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교(UCLA)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교양인을 위한 세계사』(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모두를 위한 사회과학』, 『시민의 세계사』, 『사회적 인간의 몰락』, 『불평등이 문제다』(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문화사회학의 이해』(공저), 『앤서니 기든스』, 『영화 속 인문학』 등을 출간했다.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 교육부 대형온라인강의(K-MOOC) 최우수강의상, 교육부총리상을 받았다. 네이버 열린연단, KBS <이슈 Pick, 썸과 함께>, KNN <최강 1교시> 등에서 강연을 했다. 사회학이 보통 사람의 삶을 개선하

는 무술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대중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차례

서문

감사의 글

1장 영화를 통해 사회를 볼 수 있을까?

1부 탄생: 파리에서 할리우드까지

2장 영화의 기원: 누가 영화를 만들었나?

3장 할리우드 스튜디오: 모든 길은 할리우드로 통한다

2부 고전 영화의 세 가지 세계: 자본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4장 미국 자본주의와 장르 영화: 자본과 기술이 만든 꿈의 공장

5장 소비에트 영화의 혁신: 아방가르드의 불길

6장 독일 전체주의와 영화: 어쩌다 최고의 아름다움이 악마와 손을 잡았나?

3부 영화의 다양성: 우주의 별처럼 무한한 세계

7장 미국 영화의 지배: 할리우드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

8장 프랑스 영화의 새 물결, 누벨바그: 영화 혁명가인가, 작가주의인가?

9장 초현실주의 영화의 실험: 상상력에게 모든 권력을

4부 영화 미학의 역사적 변증법

10장 급진적 반문화를 포용한 할리우드: 지배와 저항의 상호작용

11장 대중오락과 정치 선전을 넘어: 미학적 비판의 영화

12장 영화의 미래: 문화 민주주의를 향하여

책 속으로

영화의 역사는 그리 길다고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필수 요소가 되었다. 선사시대 이래 그림과 무용이 주술에 활용되고, 고대 그리스 시대의 연극이 폴리스의 종교 의식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영화는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의지를 표현한다. 여기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과거의 신화나 종교와 마찬가지로 영화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영화는 다른 예술처럼 사회를 재현하는 한편, 새롭게 구성한다. _10쪽

이 영화는 1915년 당시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인종차별적 생각을 보여준다. 해리엇 비처 스톤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1852)과 같은 노예제를 반대하는 문학 작품도 있기는 했지만, <국가의 탄생>이야말로 당대 미국인의 시대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인종차별주의로 얼룩진 영

화를 만들었던 그리피스는 혁신적 기법을 도입해 영화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는 한때 배우로 활동했지만, 감독이 되어 무려 460편이 넘는 단편영화를 제작하여 ‘영화계의 셰익스피어’로 불렸다. _60쪽

1907년에 건립된 단성사는 한국 최초의 영화관이었다. 1915년에는 또 다른 명소인 ‘우미관’이 탄생했다. 1910년 일본인이 종로 관철동에 세운 ‘경성고등연예관’을 ‘우미관’으로 이름을 바꿔 조선인 전용 영화관으로 새롭게 문을 연 것이다. 채플린의 <황금광 시대> 등 무성영화를 상영하면서, 조선인 번사가 이야기를 들려주어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 1000명이 정원인 2층 벽돌 건물에, 2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붐비자 ‘우미관 구경 안 하고 서울 다녀왔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말이 생겼다. 당시 영화관은 남녀의 좌석을 분리해야 했으며, 심지어 부부들도 따로 앉아야 했다.

_64쪽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소쿠로프 감독이 타르콥스키의 분위기를 가장 충실하게 계승한다. <러시아 방주>(2002), <파우스트>(2011) 등 그의 영화는 잇달아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히틀러, 레닌, 히로히토를 다룬 그의 정치적 영화는 권력의 본질을 생각하게 만든다. 최근 개봉한 <페어리테일: 독재자를 위한 연옥>(2022)에서 딥 페이크 기술로 복원된 스탈린은 말한다. “난 죽지 않았고 죽지 않을 거야.” 2022년 핀란드로 출국하려던 소쿠로프는 여권을 압수당하는 등 출국 금지에 가까운 탄압을 받는다. 이 모습은 예이젠시테인에 대한 스탈린의 억압을 떠올리게 한다. _105~106쪽

누벨바그의 작가주의와 실험주의를 강조한다고 해도 누벨바그가 땅에서 갑자기 솟아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누벨바그를 이끈 젊은 프랑스 감독들은 할리우드 영화와 소비에트 영화의 새로운 기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1930년대 할리우드 시스템이 영화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예술과 예술가를 질식시킬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수많은 오락영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예술 형식이 등장했다고 본다. 고다르가 말한 대로 “영화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통속적인 방식으로 가장 사유를 자극하는 발명품”으로서, 가장 독특한 가치를 가진 예술 형식이 되었다. 대표적인 상업영화로 치부되었던 앨프리드 히치콕의 작품은 프랑수아 트뤼포 등 많은 누벨바그 감독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_181쪽